

# 지역병원과 지역먹거리 소비 촉진 나선다

### 전주시, 대자인병원·전주병원·전주다솔아동병원과 지역먹거리 이용 활성화 상생협약 체결

전주시와 전주시 지역 주요 3개 병원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등 지역먹거리 체계를 확대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주시는 28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대자인병원과 전주병원, 전주다솔아동병원 등 전주시 상생발전기업으로 선정된 지역병원 3곳과 '지역먹거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병관 대자인병원장, 김종준 전주병원 의료원장, 김주형 전주다솔아동병원장 등 지역병원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병원에서의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병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병원 급식에 적극 활용해 환자와 직원의 건강을 도모하고, 지역먹거리의 소비 촉진에 앞장서게 된다. 3개 협력병원의 급식인원



전주시는 28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대자인병원과 전주병원, 전주다솔아동병원 등 전주시 상생발전기업으로 선정된 지역병원 3곳과 '지역먹거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은 2700여 명으로 연평균 급식재료 구입비는 31억 원 규모이다.

시는 행정과 병원, 공급기관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병원에 매일 지역먹거리 공급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전주푸드직매장 판촉 행사를 홍보하는 등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농가의 소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

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 등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농가와 생산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사회의 건강과 경제를 함께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설공단, '전주함께라면' 동참

### 교통약자지원부, 직장 체육대회 우승 상금 기부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전주시가 고향사랑기부금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주함께라면'에 동참했다.

공단 교통약자지원부 직원들은 28일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써 달라며 상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이들은 직장 체육대회에서 받은 우승상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용처를 알아보던 중 '전주함께라면'을 접하고, 그 취지에 공감해 선뜻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교통약자지원부는 공단 부서 대항전으로 치러진 족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상금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날 기부된 상금은 은둔형 고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주함께라면' 사업 기금으로 소중

히 쓰일 예정이다.

'전주함께라면' 사업은 한국인의 위안 음식인 '라면'을 매개로 누구나 복지관을 찾아 소통과 복지 상담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위기가구 발굴지원사업이다.

전주시 제1호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전주시 지역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라면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도 그중 하나다.

박만희 교통약자지원부장은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교통약자 지원 차를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도 흔쾌히 동참해 준 직원들이 참 고맙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활성화 위한 기업교류 간담회 개최

###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방안 모색·소통 나서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8일 전주 평화의 전당 세미나실에서 20개 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교류 간담회는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체와 채용을 약속한 기업체가 참석하여 구인·구직 정보 교류로 여성 일자리 확대와 취업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여성친화적 일터 조성 및 취업자의 고용유지를 위

한 직장 적용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더한스메디칼, 에스엘, 참병원 등 20개 기업 대표 및 채용 담당자 총 35명이 참석하여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 사업 설명에 이어 센터와 기업 간 정보공유와 소통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박성숙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참여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일자리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8일 전주 평화의 전당 세미나실에서 20개 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확대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

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주인구정책연구회가 28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전주형 인구위기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전주시의회 전주인구정책연구회, 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주인구정책연구회(회장 김동현 의원)가 28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전주형 인구위기 대응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전주시의 인구구조, 생활인프라,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현황을 진단해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을 발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역 결과 전주시는 미래먹거리 산업인 수소, 탄소, 금융의 고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리적 크기의 제약, 기업일자리 부족 및 소규모 사업체 위주 경제구조 등에서는 약점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지자체의 특례시 승격에 따른 격차와 AI, 로봇, 무인자동차 등 첨단산업 도입 경쟁, 가속화되는 노령화, 정주 여건이 우수한 인접지로의 인구 유출 등은 위험 요소로 분석됐다.

현 상황에서 전주시의 약점과 위험을 극복하고 강점과 기회를 살리기 위해 전주형 평생주택 조성, 새만금-인천국제공항 연계 현대화 도심터미널 사전계획 수립, 전주형 간병보험 상품 개발지원 등 전주시에 맞춘 8개 부문, 36개의 정책이 제안됐다.

김동현 전주인구정책연구회 회장은 "전주시가 직면한 인구 위기 문제를 진단하고 시민의 수요가 반영된 맞춤형 정책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덕진·통영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 행사 열려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28일 통영시 관내 일원에서 영·호남 의용소방대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덕진소방서·통영소방서 지매결연을 통한 상호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문화발전을 위해

마련된 교류행사이다.

이날 전주덕진의용소방대와 통영의용소방대 등 72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영소방서 방문 및 환영식 △의용소방대 활동 수법 사례 전파 및 선진 소방기술 상호 교환 △의용소방대 발전방안 토론회 △지역 문화 탐방 △지역



간 화합의 장 등으로 진행됐다. 전주덕진의용소방대 연합회(회장 강정석, 김선희)는 "교류 행사를 통해 전주덕진의용소방대의 한단계 더 발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은 "두 지역간 우호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이라며 "영·호남 간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도움이 손길을 나눠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 축! 전주매일 창간

진안농협	백운농협	부귀농협	무진장축협	전북인삼농협

농협진안군지부장 변성섭  
진안농협조합장 김문중

백운농협조합장 김연태  
부귀농협조합장 김영배

전북인삼농협조합장 신인성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